



「義興長興」銘 사
발은 「義興仁壽」와
銘字形式이 같으며
이銘文 주위로는蓮
圈文과 나비文을白
土印花하였고 다시
그 주위로는蓮圈文
口緣에는 草葉文이
있고裏面文樣은거
의形式化된蓮圈文
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들文樣은比較的
정성껏 도장이 꼭꼭
적혀지고 白土嵌入
도良好한 편이다.

나타나 있지 않으며 물레의 자국도 없다. 높이 六·九cm, 口徑 十八
·七cm, 筒徑 五·八cm, 筒높이 一·二cm로 「義興仁壽」와 좋은對照를
이루고 있다.

「義興長」점사 역시 字銘의 位置나 樣式은 前二例와 거의 同一하다.
높이 四cm, 口徑 十四·八cm, 筒높이 〇·八cm, 筒徑 四·五cm의 灰黃
色이 감도는 점사로서 粉粧은 比較的 두터우나 雜物이 많이 섞인 胎土
로서 釉藥을 바른 器面에는 數處에 작은 구멍이 뚫려졌고 白土가 묻쳐
文樣이 흩어진 低質의 下品磁器이다. 內面中央 「義興長」의 銘文 주위로
六個의 흙비짐눈을 使用한 흔적이 있어 此種점사들의 燒成方法을 말해

주고 있고 굽밑에도 五個의 흙비짐눈을 使用했으며 筒內 釉藥도 있다.
以上에서 볼때 이 三點의 共通點은 銘文을 넣은 樣式이 內面中央 바
다에 縱書 一行으로 白土嵌入하였다는 點과 蓮圈文樣, 筒의 처리 胎土
釉藥, 其他, 粉粧手法 등으로 보아 義興에 存在하였던 어느 同一가마의
產品이라고 볼 수 있다.

東國輿地勝覽 義興縣 土產條에 磁器가 이 地方 土產物의 하나였음을 알
려주고 있다. 特히 仁壽府라 하던 太宗의 世子府였으며 定宗二年에 設
置되었다가 世祖元년에 廢止되는 官廳이므로 이 期間中에 義興地方의 가
마에서 中央에 納品키 爲한 磁器를 貢 한 하나의 官窯였으리라고 본다. 따
라서 이 地方에 우수한 粉靑의 窯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 慶尙
道地方의 窯址에 對하여는 學術調査報告가 없음으로 學術的인 근거를 잡
을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高靈, 彥陽, 軍威, 等の 仁壽府銘 그릇들이 구
어졌던 가마와 더불어 이 義興窯址의 調査에 期待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
한다.

〔後記〕 德壽宮美術館에도 「義興」銘文의 粉靑磁器가 있다는 것을 들
은바 있었으나 아직 그 實物을 接한 바 없어 機會있는 대로 調査할 생
각이다.

沃溝 竹山里 三層石塔

李 殷 昌

沃溝郡 大野面 竹山里의 三層石塔을 一九六五年 三月에 調査한 바 있
어 이에 紹介한다.

裡里에서 群山으로 通하는 道路를 잡아들어 約 八km쯤 가면 左便으로
竹山里 塔洞部落이 있으니 뒤로는 建嶺山이 있고 앞으로는 面名과 같이
湖南平野의 北端인 大野가 展開되었다. 이곳 部落에 瓦片이 散在한 逸
名寺址가 있고 寺址에는 靑龍寺라 이름하는 草屋庵子가 있고 庵子西南



便발 가운데에 三層石塔 一基가 있으니 一段 높은 臺地上에 石塔이 있고 石塔後面의 臺地에 建物址가 推定되는 바 石塔은 法堂 正前에 該當된다. 그동안 이 石塔에 對하여는 諸先學의 踏查가 있었고 또誌

上에 ① 問題가 된 바도 있다. 그러나 詳細한 記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調査된 事項을 記述하고자 한다.

石塔은 單基壇위에 三層塔身이 重積되고 相輪部가 一部 破失되고 一部는 現存하고 있다. 八·一五解放後 地方民들이 募金하여 一九五七年에 重修하였는데 元形이 變更된 部分도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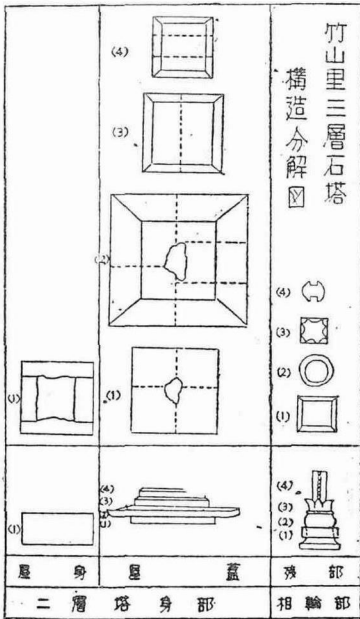
基壇은 地盤石이 重修當時에 「콩크리트」속에 埋沒된 것으로 넓직한 四角臺形의 「콩크리트」위에 中石이 놓였는데 總十二個의 石片으로 짜이었는데 四隅柱가 보인다. 그리고 이 中石위에 四枚板石이 田字形으로 된 甲石을 덮었으니 곧 低平廣大한 單基壇을 形成하였다.

塔身은 三層이니 初層屋身은 別個石으로 四角隅柱가 세워지고 各間은 下枋·引枋과 같은 別個石이 上下에 가로 놓였고 이 隅柱와 下枋·引枋 사이에 二枚板石으로 된 面石을 끼웠으니 面石은 下側이 크고 上側이 작아 木造建物の 分間窓과 交窓의 느낌을 준다. 初層屋蓋石은 屋身위에 木造建物の 枋拱의 變形을 한 二層級의 받침을 別個石으로 造成하였는데 下는 平面 田字形으로 짜이고 上은 平面 田字形으로 짜이였으며 平薄廣大한 屋蓋石이 平面 田字形으로 덮였으며 若干의 勾配가 表示되었다. 그리고 屋蓋上에는 다음 層을 받기爲하여 또 二層級의 「屋身과인」을 重置하였으니 各各 여러個의 石片으로 짜이고 若干의 勾配表示가 있어 雨

水의 落差를 돕게 하였다. 第二層 第三層은 屋身高가 急激한 短縮을 보이고 그 手法은 初層과 달리 屋身の 構造가 四枚板石을 田字形 또는 卍字形으로 맞춰세우고 屋蓋는 初層과 같이 亦是 枋拱의 變形을 한 받침(一層級으로 短縮과 平薄廣大한 屋蓋石과 屋蓋石上의 二層級의 屋身과인)이 三層까지 反復되었다.

相輪은 露盤·覆鉢·仰花가 殘存하고 또 寶輪을 끼웠던 圓形石柱片이 頂上에 남아 있다. 露盤은 四角笠形을 한 蓋石을 얹어 놓고 그 위를 四角盆形으로 된 蓋石을 맞춰놓았으며 覆鉢은 楕圓球과 같으며 仰花는 四角形으로 四隅와 四面에 花瓣이(總八葉) 彫刻되었다. 이 仰花의 蓮瓣속에서 솟아난 圓形石柱片에는 홈(溝)이 패이여 寶輪을 들어맞추도록 하였다.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이 ① 低平廣大한 單基壇과 ② 別個石의 四隅柱와 別個石의 面石으로 組合된 初層屋身과 ③ 平薄廣大한 屋蓋石에 枋拱變形을 보이는 받침 또는 別個石으로 된 二層節의 屋身과인인 特設된 것과 ④ 初層屋身이 長大한데 對하여 二層以上이 急激한 短縮比例를 보이고 安定感을 주는 塔體와 ⑤ 多數石片을 組合하여 ② 可及的 木造架構를 直譯하는데 힘썼다는 點等 곧 木造塔을 翻案한 百濟石塔樣式系統을 이어받은 것으로 扶餘 定林寺 五層石塔을 模倣한 것인 바 年代는 高麗로 推定된다.



※ 三層塔身은 省略한

實測值 總高約五·五m
基壇部(高七〇cm)

- ① 中石高二四cm 橫幅二二〇cm(一邊)
② 甲石高(厚)二〇cm 橫長二三〇cm(一邊)
塔身部

初層 ① 屋身高一五〇cm 幅一四三cm ② 屋蓋高四五cm 幅二五五cm
(받침) 第一級……厚一六cm 長一五五cm 第二級 厚一六cm 長一八五cm (以下省略)。

註

① 大原利武論文「三國時代の石塔た就いて」朝鮮と建築第一〇四號)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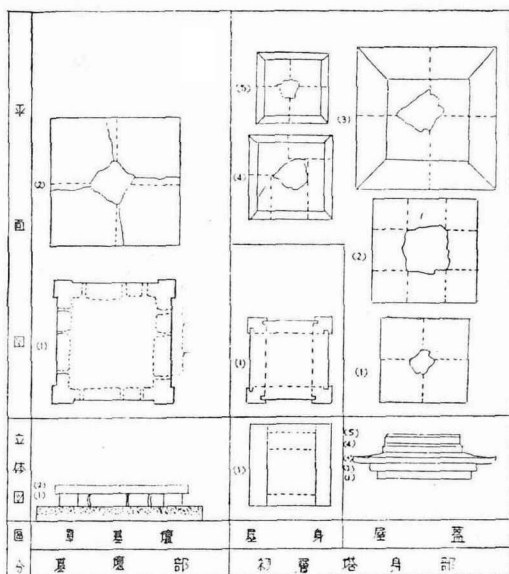
高裕燮 遺著 韓國建築美術史草稿「百濟의 建築」條 三五面參照。

杉山信三 著 朝鮮の石塔一〇〇面 參照。

考古美術同人會刊「韓國塔婆目錄」全北沃溝郡條。

② 竹山里三層石塔之多數石片으로 建築되었는바 基壇中石以上相

第六卷 第三·四號 通卷五十六·五十七號



서울大博物館 所藏

木造樣式的 石塔材

申 榮 勳

輪殘存部까지 總九十三個의 石片으로 組合되었었다. 基壇部가 十六個 初層塔身이 三十六個, 二層塔身이 二十二個, 三層塔身이 十五個, 相輪部가 四個로 이들 石片의 數와 規格이 統一性과 均齊美를 잃어 若干의 疎忽한 感覺을 주고 있다.

一九六一年夏 黃壽永教授 敎示에 따라 鄭明鎬氏와 함께 國立서울大學 校博物館所藏 木造建物樣式의 石塔材 一片을 調査하였었다.

塔材는 何層인지 不明한 蓋石部片인데 蓋石은 半破에 가깝고 殘存部分도 二隅端과 軒端이 破損되어 全貌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다행히 近來 이 蓋石과 比較考察될만한 새로운 資料가 出現함에 힘을 얻어 이 蓋石을 간단히 紹介하고자 하는 바이다.

蓋石(現高 〇·三二五尺(一邊長) A邊 一·〇二尺 他邊長(B邊) 〇·六二尺)은 花崗岩製, 매우 精緻하게 各部를 彫成하여서 손쉽게 細部를 判別할 수 있다.

蓋石은 四邊이 同一한 正方形의 規格이었겠으나 지금과 같이 破損되어 各邊의 長이가 제각기가 되고 말았다. 蓋石은 下層塔身위에 놓여 上層塔身을 받도록 된 것으로 一般型塔과 同一한 것이다.

蓋石上面의 塔身받침 部分에는 方形孔을穿孔하였는바 半破됨에 따라 지금은 一邊이 없어진 卍字形의 모습을 남기고 있다(圖面一參照)이 塔身받침을 中心으로 하여 三면에 瓦列이 配列되었고 各隅에 隅棟이 造出되어 있다. 瓦列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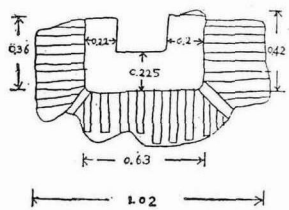


圖 1. 屋蓋石平面 單位는 尺